

광주 8석...국민의당 “7석 해야 완승” 더민주 “2석이면 본전”

2野 승패 기준은?

전남 10석 놓고 양당 접전
국민의당 4석 이상만 승리

4·13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호남 제1당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에서 양당의 승패 기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현재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은 모두 19명이다. 이 중 국민의당 소속은 9명, 더민주 소속은 8명이다. 새누리당과 기독교자유당 소속 의원도 각 1명이다. 따라서 현재 광주·전남지역 제1당은 간발의 격차로 국민의당이다.

하지만, 현재 판세는 더민주가 광주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 전남에서는 양당이 경합하는 형국여서 그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우선 광주에서 국민의당은 녹색바람으로 광산을 제외한 7석을 자신하고 있다. 광산을 권은희 의원의 막판 추격세가 이어지고 있어 8석 전석 확보도 기대하고 있다. 더민주의 지난주 문재인 전 대표가 광주를 방문해 반문(反文) 정서를 어느 정도 완화했고,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열세를 보였던 2~3곳에서 선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광주 의석은 국민의당 소속이 6명, 더민주 소속이 2명이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승패를 판단하면 국민의당은 7석 이상을 얻으면 승리하게 된다. 이 경우 국민의당은 야권 심장부에서 압승으로 명실상부한 호남 최대 주주로 인정받게 된다. 이 경우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는 야권의 대선 후보로서 치명적 약점을 안게 될 뿐 아니라 정계 은퇴 논란에 직면할 것으로 예



호남을 재방문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1일 오후 광양시 중마동에서 시민들에게 우윤근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관악구 현대시장에서 김성식 후보(관악구갑)에 대한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된다. 또한 김종인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비례대표 ‘셀프공천’과 광주 일부 지역구 공천 잘못에 대한 책임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에서는 2석이면 ‘본전’, 3석이면 선전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민의당에 뒤졌지만 제1야당의 자존심을 지킨 것이라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또 광주 시민이 한쪽에 일방적으로 몰아주지 않음으로써 향후 양당이 경쟁을 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준 셈이 된다.

전남의 경우 현재 11명의 의원이 더민주 6명, 국민의당 3명, 새누리당 1명, 기독교자유당 1명으로 분포돼 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의 전남 의석수는 10석으로 1석이 줄었다. 이를 기준으로 승패를 판단하면 더민주 7석 이상, 그리고 국민의당은 4석 이상을 차지해야 각각 승리를 선언할 수 있다.

이날까지 각종 여론조사와 각종 판세분석을 종합하면 곳곳에서 경합을 하는 가운데 더민주의 순천(노관규), 나주·화순(신정훈), 담양·함평·영광·장성(이개호) 등을 우세 지역으로 분류한 반면, 국민의당은 담양·함평·영광·장성(강형욱), 순천(구희승)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다른 선거구에서는 승기를 잡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전남에서는 싸움이 현상이 나타나기 보다는 양당에 의석을 나눠주는 양상으로 투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나 국민의당 승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한편, 2004년 민주당이 열린우리당과 새천년민주당으로 분당되면서 치러진 17대 총선 때는 새천년민주당이 주도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광주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7석 전석을 휩쓸었다. 전남에서는 전체 13석 중 열린우리당 7석, 새천년민주당 5석, 무소속 1석으로 양분됐다.

/박지경기자jpark@kwangju.co.kr

지지 거두면 정계 은퇴 하겠다는 문재인 호남민심 지지 기준 10석? 14석?

판세 불리 추후 논란 예고
전국 100석 이하엔 책임론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가 4·13총선을 이틀 앞둔 11일 호남을 1박2일 일정으로 재차 방문하면서 지난 1차 방문(8~9일)때 호남 지지를 전제로 내세운 대선 불출마 및 정계 은퇴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 전 대표가 당시 “(호남이) 저에 대한 지지를 거두면 미련 없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고 대선에도 도전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기준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민주 측에서는 문 전 대표의 정계 은퇴와 연계된 호남 민심 지지 기준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문 전 대표의 호남 민심 지지를 연계한 정계 은퇴 발언은 새누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을 지지해 달라는 진정성이 담긴 호소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당내에서는 호남 지지 기준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판세로는 호남에서 10석 정도 승리한다면 어느 정도 민심이 풀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총선 결과에 전적으로 연계하기 보다는 총선 이후 문 전 대표에 대한 호남

민심의 지지 여부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문 전 대표에 대한 호남 민심 지지 기준으로 더민주가 최소한 현재의 의석수 정도는 승리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호남의 더민주 의석을 지키지 못하고 호남 민심의 지지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더민주 소속 호남 국회의원은 14명이며 이는 전체 호남 의석(28석)의 절반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재 판세로는 더민주가 호남에서 14석 이상 확보하기 그리 쉽지 않은 상황여서 문 전 대표의 정계 은퇴와 연계된 호남 민심 지지 기준을 놓고 추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월 신년 회견 때 이미 “총선 결과에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바 있어 그의 정치적 운명은 호남은 물론 전체 총선 결과와 연동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호남을 떠나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문 전 대표는 책임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호남에서 최소 절반 의석 이상, 총선에서 최소 100석 이상을 얻어야 문 전 대표의 대권 도전 길 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48시간 릴레이 유세·무박 2일 결의대회...사활 전 막판 득표전

4·13 총선이 이를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지역 후보들이 지지층 결집과 부동층 흡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 후보들은 11일 0시부터 공식선거운동 마감시간인 13일 0시까지 48시간 연속 ‘릴레이 유세’를 펼치는 등 막판 득표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새누리당 광주시당은 11일 광주 서구 기자회견 광주 제2공장 정문 앞에서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당원 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무박2일 총력전 결의대회’를 가졌다. 새누리당 후보들은 총력전 결의대회 이후부터 선거운동이 공식 종

료되는 12일 자정까지 시장, 주요거리 등을 순회하는 ‘무박 2일’ 대장정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광산을 후보는 이날부터 광산을 지역구 시·군의원 및 지지자들과 함께 광산구 첨단 LC타워 앞에서 철야 노숙을 하며 ‘무박 2일 광주민심 청취’를 벌인다. 더민주 최진 광주 동남갑 후보도 지역구 전역을 돌며 48시간 마라톤 유세를 펼치고 있다.

더민주 양향자 광주 서구를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더민주 소속 시·군의원과 최근 국민의당을 탈당한 김영남 시의원 등은 이

날부터 투표 종료 시간까지 3일간 ‘천정배 후보 퇴출’을 호소하기 위한 시한부 단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광산갑 후보와 송기석 광주 서구갑 후보는 이날부터 선거운동원과 함께 선거구를 권역별로 나눠 48시간 총력 선거운동 체제에 돌입하는 등 막판 표심잡기에 나섰다.

이에 앞서 국민의당 박준선 광주 동남을 후보는 10일부터 선거운동 종료시점인 12일 자정까지 3일간 총 33만보의 유세 강행군을 펼치기로 했다. 골목을 돌며 지역주민을 저인망식으로 접촉해 지지를 호소하

고 있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정의당이 범야권의 통합과 연대를 주도적으로 성사시켜 정권교체 실현에 앞장설 것이다”면서 “정의당을 진보대표 정당으로 키워달라”고 호소했다.

민중연합당 손술 공동대표와 광주지역 후보들도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정당은 민중연합당 뿐이다”며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통합진보당까지 진보정치를 키워주신 것은 광주시민이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의원

녹내장

눈 속의 압력인 안압이 높아져 시신경이 건너지 못하고 죽어가는 질환이 녹내장입니다. 서서히 진행되어 실명에 도달하는 무서운 질환

◎ 치료 방법 : 약물치료, 레이저 치료, 수술

일반적으로 약물치료를 먼저 시행하며 만족할 만한 안압하강 효과가 없는 경우 레이저 치료나 수술적 방법을 고려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시간 : 스미일 / 라식 / 라섹 / 백내장 / 녹내장 / 양막 / 눈성형 / 노안

밝은광주안과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법인회생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병원 등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대표변호사 곽민섭

- 광주지법 해남지원 지원장·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회생 및 파산업무)
- 특허법원 판사
- 법학박사, 경제학석사
- 세무사, 변리사

함께 이루는 밝은 세상
법률사무소 희망미래 062-228-2266